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8차 세션, 요한계시록 21-22장의 성전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요한 계시록 21-22장의 성전에 대한 세션 8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거주지, 하나님의 성막 거주지,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예언적 기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현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약 증거 또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리고 확장하여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아직 아닌 차원이 있습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 아닌 차원이 있습니다. 성전의 아직 아닌 차원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시작하여 22절과 5절까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전체 부분을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성전 이미지, 성전 주제와의 관계, 그리고 그 주제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그 중 특정 부분을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는 새 창조에 대해 읽습니다. 요한은 새 창조와 그 중심인 새 예루살렘에서 구속 역사의 절정을 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은, 특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암시하는 구약성경 구절과 새로운 창조와 미래의 회복과 구원과 완성에 대한 다른 유대인의 비전과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요한이 21장 끝에서 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요한은 실제로 에스겔 40장부터 47장에 의존합니다. 21장에서 요한은 에스겔처럼 여행을 하지만 성전에 대한 여행은 아닙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여행하며, 그 문과 벽을 봅니다. 이 여정에서 그를 인도하는 천사는 에제키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여러 구역을 측정합니다.

요한이 이제 도시 안에 있는 듯, 아마도 그 중심에 있는 듯할 때, 그는 22절에서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요한은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이 이상한 이유는 첫째, 요한이 많이 인용하는 구약성경 구절, 에스겔 40~48장인데, 성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 천사가 그를 안내한 것, 그리고 그가 측정한 것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한은 에스겔에 흥미진진하게 의지하면서, 22절의 에스겔과는 대조적으로, 나는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마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고, 당신이 성전을 볼 것으로 기대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요한은 나는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또한 그 당시의 이상적인 그리스-로마 도시나 헬레니즘 도시를 기반으로 자신의 도시를 모델링했을 수도 있는데, 그 도시의 중심부 어딘가, 아마도 광장이나 아고라에 신이나 황제에게 바쳐진 사원이나 성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아마도 요한이 이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곳에서, 그가, 그리스-로마 도시든 구약성서에서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이든, 성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유대교 묵시록, 에녹서 1장 80~90장 및 그 이후에서, 에녹서 1장은 회복된 성전이나 회복된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으며, 성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래에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는 거의 항상 새로워진 성전이나 재건된 성전을 포함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요. 하지만 요한은 성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계속해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에 때문에 그 도시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 복음에서 본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은 그가 세울 성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과 성전의 영광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요한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항상 가리키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고, 하나님과 어린양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에덴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새 창조물에서 그들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전이 없는 이유는 성전이 예상하고 가리키려고 했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땅에서 문자 그대로의 장소에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직접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대인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예를 들어 에스겔 40-48에서와 같은 곳에서, 그리고 이상적인 도시에 대한 그리스-로마와 헬레니즘의 묘사에 비추어 볼 때, 요한은 성전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제 성취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리키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성전과 동일시하는 것 같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요한에게서 발견할 것은, 비록 그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즉, 물리적으로 분리된 성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는 일은 그가 에스겔 40-48장과 구약의 다른 곳에서 성전 이미지를 가져와 적용하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 전체와 새 창조물에 중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체 창조물, 전체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별도의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체 새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여섯, 일곱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21장 3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앞으로 계속 살펴볼 본문에서, 요한은 에스겔 37장과 레위기 26장에서 새 언약 공식을 인용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교회가 성전임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했던 두 구절과 동일할 것입니다. 요한은 21장 3절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사람들 가운데 있고, 그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37장과 레위기 26장에서 이 언약 공식이 성전 건립에 대한 설명을 예상하거나 서두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우리는 이 언약 공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그의 백성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48장이 나오는데, 그 성전을 설명하고, 그 거처를 설명합니다.

이제 요한은 21:3에서 비슷한 것을 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언약 공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이제 그의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발견하는 것은 성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신부는 성전,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별도의 물리적 구조물이나 성전 건물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전체 창조물과 전체 새 예루살렘과 동등합니다. 사실, 많은 세부 사항을 다루지 않고도, 저는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바울의 서신과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아마도 주로 사람들 자신을 가리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와 동일시되는데, 이전에 신부는 분명히 사람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이 하는 일이 바울이 한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물과 성전 이미지를 가져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여기서 비슷한 것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이미지와 성전 이미지를 가져와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주로 사람들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또한 주로 새 창조물, 새 땅에서 지금 살고 존재하는 사람들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레위기 26장, 에스겔 20장 37절의 언약 공식인 21:3은 계시록 21:3에서 새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새 언약의 거처가 별도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하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21:22). 대신, 온 백성, 새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거처,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은 거의 역설적이게도, 그리고 매우 흥미롭게도, 에스겔 40-48은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와 개념에 사용한 주요 모델, 주요 구약성경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40-48의 핵심은 새 성전, 회복된 별도의 성전, 새 예루살렘과 별도의 성전에 대한 묘사와 측정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요한은 별도의 성전을 보지 못하고(21장 22절) 이제 에스겔 40-48을 새 예루살렘 자체, 새 예루살렘 신부 자체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은 에스겔 40-48에서 성전 대신 도시를 측정합니다. 성전이 측정됩니다. 계시록 21에서는 성전의 모든 부분이 측정됩니다.

측정되는 것은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생명의 강은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40-48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은 에스겔에서 성전 이미지를 가져와 도시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다른 흥미로운 것 몇 가지는 에스겔 40-48, 특히 43장 16절입니다. 에스겔 40-43장 16절에서 회복된 성전과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43절 16절을 봅시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제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단 난로는 4큐빗 높이이고, 네 개의 뿔이 땅에서 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제단 난로는 정사각형이거나 네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습니다 . 흥미롭게도 , 칠십인역,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그것은 계시록 21장 16절에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1-16절에서 도시가 정사각형이나 네 정사각형처럼 배치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그리스어 단어는 에스겔 43장 16절의 그리스어 번역에서 제단을 설명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자인 요한은 다시 한 번 에스겔 40-48장의 언어를 가져와서 지금은 별도의 성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전체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이유는 이제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 이미지는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도시 전체에 적용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에덴 동산과 창조물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것과 비슷하거나,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에서 이미 성전 이미지와 성막 이미지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21장에서 새로운 창조, 새 예루살렘에 적용된 성전 이미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측정한 네 개의 정사각형, 물이 흘러나오는 곳은 더 이상 별도의 물리적 성전이 아닙니다. 요한은 성전이 없고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스겔 40-48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만, 에스겔에서 발견했거나 대부분의 유대 문학이나 종말 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별도의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회복된 창조, 새 창조,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대신, 이제 아마도 사람들을 지칭하는 전체 도시가 성전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도시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현존이 전체 창조물과 동등하고 퍼져 있는 성전이 되었고, 더 이상 별도의 건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볼 수 있듯이,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의도하신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 건물에 거하지 않으셨고, 에덴에 거하셨으며, 전체 창조물이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물리적 성전은 우리가 구약성경 본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미 보았듯이, 장막과 성전은 모두 전체 우주의 축소판처럼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임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모든 창조물을 채울 때를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전, 별도의 물리적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입니다. 성전의 목표가 이제 달성되었고 이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새 창조물이 성전이며, 요한은 에스겔 40-48을 취하여 별도의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에스겔과 다른 구약성경 예언적 기대를 성취하여 새 예루살렘 전체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장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예상하는 새 언약 공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한이 재건된 성전에 관한 에제키엘 40-48을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이제 그것을 새 예루살렘에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 거의 역설적이게도, 성전이 에제키엘의 환상에서 주된 관심사였던 반면, 요한의 환상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목적이 이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번째 증명이나 증거는 계시록 21장 19-20절에 나오는 보석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21장 19절에서 요한은 이미 기초를 언급하여 요한이 도시를 상징적으로 사람들과 동일시하려 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했습니다. 도시의 기초가 사도들과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이름은 계시록 21장 14절에 도시에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 기초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의 기초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초는 벽옥, 두 번째는 사파이어, 세 번째는 마노, 네 번째는 에메랄드였고 나머지 여덟 개의 돌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21장 19-20절에서 열두 기초 각각은 열두 개의 특정 돌과 동일시됩니다. 거의 모든 해설에서 말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돌이 대제사장의 흉갑에 있는 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과 에스겔 26장은 흥미롭게도 에덴 동산과 아담이 제사장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돌들은 대제사장의 흉갑뿐만 아니라 원래 성소인 에덴 동산과도 연결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흉갑에 있는 돌들은 이제 기초석과 연관되어 새 예루살렘의 제사장적 기능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발견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반영이 다시 한 번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영적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제, 보석과 기초의 연관성, 즉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흉갑에서 나온 돌이 명백합니다. 또 다른 유대 문헌도 이제 새 예루살렘 백성 전체의 제사장적 기능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제안합니다.

성전과의 또 다른 중요한 연결 고리는 도시의 구성에서 발견됩니다. 즉, 보석 외에도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금속은 금입니다. 따라서 21장 21절에서 도시의 큰 거리는 투명한 유리처럼 순수한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특히 그리스-로마 도시는 보통 중앙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마도 여기의 단어는 도시 중심부에 있는 넓은 장소 또는 광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저자는 거리나 광장이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장 18절에서 저자는 성벽이 벽옥으로 만들어졌고 도시는 유리처럼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언급했듯이, 구약 증거를 살펴보면, 금이 장막과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된 주요 금속으로서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한 설명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기겠습니다. 또한, 열왕기 상 5-7장을 더 자세히 읽어보고, 건축에 사용된 주요 금속으로 금이 곳곳에 나타나는 부분을 읽어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열왕기 상 6장과 19-22장에서 그는 성전 안에 내부 성소를 준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위에 두었습니다.

내성소는 길이가 20큐빗, 너비가 20큐빗, 높이가 20큐빗이었습니다. 그는 안을 순금으로 덮었고, 백향목 제단을 덮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을 순금으로 덮었고, 금으로 덮은 내성소 앞에 금 사슬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부 전체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또한 내부 성소에 속한 제단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덮여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효과는 새 예루살렘의 뛰어난 가치와 아름다움을 암시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요.

하지만 저자는 당신이 구약성경과의 연관성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다른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글쎄요, 방금 열왕기 상권에서 성전이 금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내부 성소도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 새 예루살렘에 있는 금의 존재, 황금 거리, 21:18에 나오는 금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새 예루살렘을 성전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금은 또한 낙원이나 에덴 동산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층별로 돌아가서, 만약 새 예루살렘에 있는 금이 금으로 덮여 있고 덧입혀진 성전과 연결된다면, 성전과 장막에 있는 금도 아마도 우리가 성소라고 본 에덴 동산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성전과 성막은 에덴의 미니어처 정원으로 의도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 동산에 거하시는 것을 다시 포착하고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창세기 2장, 특히 11절과 12절에서 읽은 본문 중 하나에서 금이 이미 에덴 동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읽습니다. 제가 백업할 수 있다면, 10절에서, 정원을 적시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흐르는 강은 왕좌에서 흘러나와 에스겔 47장의 성전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에덴 성전,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던 에덴 성소에서 흘러나온 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11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피손입니다.

그것은 금이 발견되는 하월라의 온 땅을 관통합니다. 그 땅의 금은 좋습니다. 그는 창세기 2장 12절에서 오닉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과 보석은 성전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과도 연결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던 원래의 성전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은 성전 정원입니다. 성전 정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 장막과 성전, 그리고 예언적 기대 (에스겔 40장~48장)의 성취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그게 네 번째였습니다. 다섯 번째 요점은 계시록 21-16장에서 도시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21절 16절에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너비만큼 길이도 정사각형처럼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막대기로 도시를 측정했고 길이가 12,000 스타디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측정 단위나 그런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길이만큼 폭과 높이도 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입방체 모양입니다. 입방체와 같은 모양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즉, 그것은 입방체 모양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상권으로 돌아가 보면, 열왕기 상권 5-7장은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인 원래 성전의 건축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장 20절에서 저자는 내부 성소가 길이가 20큐빗, 너비가 20큐빗, 높이가 20큐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안을 순금으로 입혔고, 제단도 금으로 입혔다. 다시 말해, 안성소의 길이, 너비, 높이는 같았다. 즉, 정육면체 모양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것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그것은 내부 성소입니다. 그것은 같은 모양입니다.

그것은 지성소가 열왕기 상 6장에 있는 것처럼 입방체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도시의 입방체 모양은 아름다움과 대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의 언어에서는 종종 한 가지 이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언어는 때때로 매우 복잡적입니다.

그것은 하나 이상의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큐브 모양은 대칭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또한, 저는 주로 열왕기 상 6장에 나오는 내부 성소의 모양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 기능에 대한 몇 가지 다른 표시가 22장에 있습니다. 22장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이 그 도시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 번 더, 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과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기억합니다.

이제 ,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에 서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제사장으로서 기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과 관련된 제사장적 언어가 이제 별도의 제사장 집단에게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기능합니다. 마지막 하나, 숫자 7입니다. 이게 일곱 번째인데, 저는 계시록에서 7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는 22장 5절에 있습니다.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요, 등잔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성전에 빛을 주던 등잔불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빛을 비추시고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21-3장에 있는 새 언약 공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새 언약을 예견하는 것이고, 요한이 재건된 성전에 관한 에스겔 40-48을 인용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새 예루살렘 백성에게 적용합니다.

21:19, 20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흉갑에 있는 돌은 새 예루살렘 백성 전체의 제사장적 기능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금이 주요 금속이라는 사실은 금이 장막과 성전의 건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도시의 입방체 모양은 지성소의 모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 제사장으로서 기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직접 보고, 구약의 제사장들의

기능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빛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워서 더 이상 빛을 줄 등불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이 다시 주로 사람들 자신을 상징하고 의미하는데, 바울이 언어를 사용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전체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과 성막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성소 성전 정원이지만, 재건된 성전에 대한 예언적 기대이기도 하며, 에스겔 40-48절에 따르면,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원래 의도, 즉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땅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거처는 도시 전체 사람들과 창조물 전체와 동등하게 확장되어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한 것에 덧붙여,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처음에 그것을 필요로 했던 장막과 성전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영향을 받은 첫 번째 창조물,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이 처음에 장막과 성전을 필요로 했습니다.

구약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성막과 성전이 한 일 중 하나는 그것이 구조화된 방식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는 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었지만, 그것이 세워진 방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 제한하여 하나님께서 주로 지성소에 거하셨고,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던 바로 그 것, 죄와 악과 옛 질서가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요한은 옛 창조물, 옛 하늘과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애통과 울음과 고통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 원인이 된 것들이 이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막과 성전, 첫 번째 창조, 죄와 악이 필요했던 바로 그 것이 이제 제거되어 별도의 성전이나 장막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첫 번째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백성과 직접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과 성전의 목표는 이제 마침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의도는 이제 구원 역사의 긴 과정을 거쳐 절정에 도달했으며,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에서 목표와 궁극적인 성취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창조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즉시 직접 거주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궁금해하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하는데, 특히 특정 신학적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뿐만 아니라 구약과 다른 구약성경 본문,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신약성경 본문에서 말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성전이 재건될 것인가? 예를 들어 에스겔 40-48장에서 읽은 내용과 재건된 성전에 대한 구약성경의 기대, 그리고 성전이 수행한 역할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언젠가 미래에 성전이 재건될 것으로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희생 제도가 다시 제정되고 성전이 기능하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제 답은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알다시피, 지금 성전산은 무슬림이 점령하고 있고, 돔과 록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언젠가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희생을 제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성경 예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읽은 것과 성전 주제의 성경적, 신학적 발전에 관해 본 것을 감안할 때, 성전은 성전의 주요 기능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현존과 그 현존이 전체 창조물과 전체 지구를 포용하는 확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신약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 새 창조 안에서 성전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물리적 성전은 역할을 하지 않는 듯합니다. 왜? 성전의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과 직접 거하시고, 어느 날 새 예루살렘 백성 안에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것이 또 다른 물리적 성전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제 현실이 도래했는데, 왜 그들은 상징, 사본, 그것을 예상했던 그림자로 돌아가고 싶어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직접 거하시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따라 물리적 성전 없이 새 예루살렘 전체에 그분의 임재가 나타날 것인데, 목표가 이제 달성되었다면 왜 우리가 물리적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할까요? 그것은 새로운 물리적 별도의 성전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루살렘에 또 다른 성전이 재건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예언의 성취로 보여야 한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하나님의 성막 성전의 성취, 에덴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새로운 창조에서 물리적 공간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취에는 문자적인 물리적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물리적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리적 창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의도하신 방식입니다. 다시 그렉 비얼을 언급하자면, 그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에 해외에서 아내와 헤어졌을 때, 그녀의 사진이 있었고, 자주 그 사진을 보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재회했을 때,

그는 현실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그 사진을 보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성전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왜 실제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할까요? 그것이 가리키던 현실이 지금 여기 있고, 현실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성경 예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현실이 목표와 성취에 도달했으니, 왜 그림자나 사본으로 돌아가고 싶어할까요?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다음 주제는 성전이라는 주제와 여러 다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언약 또는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언약 또는 언약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구조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주요 주제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발터 아이크로트에서 시작하여 언약이 성경의 주요 주제 또는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보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구원적 관계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을 성경 전체에 걸쳐 전개되는 중요한 성경적-신학적 주제이자 신약 성경의 신학적 주제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아마도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저는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많은 세부 사항을 다루고 싶지 않지만, 성경에서 언약이나 언약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약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휘적 자료에 관한 한, 보통 언약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어 단어인 베리트 나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어 단어인 디아테케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두 단어 모두 보통 언약으로 번역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 단어의 존재에 제한하거나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에서 베리트 나 디아테케가 부족한 곳에서도 우리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정할 수 없습니다.

어휘적 데이터가 없는 텍스트에서도 언약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약은... 특히 구약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고대 언약과 성경 데이터에 비추어 볼 수 있는 빛을 조사함으로써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그것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적 틀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선언이나 합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맹세로 확인되거나 확립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적 틀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선언이나 합의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보통 맹세로 확인되거나 확립됩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백성을 자녀로 입양함으로써 백성과 관계를 맺는 왕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가족 언어가 나오는 곳마다 아버지와 자녀가 언약 관계의 가정을 뒷받침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 왕으로서 백성을 자녀로 입양함으로써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상해 보면, 다윗과의 언약의 일부를 기억한다면, 다윗의 언약,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왕이시며 아버지가 되어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언약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시거나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선택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적어도 성경적 언약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주된 창시자임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은 언약을 원한다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게 언약 관계를 수립하시고, 그분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성경 신학의 중심 주제라는 책에서 언약에 대한 장에 대한 매우 유용한 기사에서, 스콧 하페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언약의 세 가지 요소를 분리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은혜롭게 돌보시고 언약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의 창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언약 관계에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은혜롭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언약이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에 참여하는 당사자에게는 언약을 유지하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특정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언약 관계를 지키거나 지키지 못할 때 오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롭게 돌보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언약에는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와 규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과 관련하여 언약을 지키거나 지키지 못하는 것에 근거한 저주, 축복,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고 다른 몇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본 언약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아마도 언약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37장에서 그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다른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어는 언약 관계의 핵심에 있는 것을 요약하고 요약하는 공식인 듯합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나 언약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적어도 한 세션을 구약 증거를 살펴보고 구약 언약과 그것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매우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 대부분의 시간을 신약에서 언약, 특히 새 언약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는 데 할애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중 하나는 언약이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맺은 언약,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인 모세 언약과 같이 대부분의 언약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약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창조 시에도 언약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방금 간략하게 그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약에 언약이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저는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싶지도 않고 희망도 없지만, 적어도 창조 시에도 언약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이 모든 언약 간의 관계입니다. 전통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유일한 접근법은 아니며, 그 안에도 변형이 있습니다. 이 두 접근법은 심지어 언약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언약과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분배주의로 알려진 운동은 전통적으로 언약들 사이에 더 많은 불연속성을 보았고, 특히 교회와 관련하여 언약이 성취되는 방식 측면에서 일부 언약들 사이에 더 많은 단절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언약 신학으로 알려진 운동은 더 많은 연속성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하나의 언약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들 간의 관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불연속성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 사이에 더 많은 연속성을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언약들 사이에 불연속성과 연속성의 요소를 모두 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언약은, 다시 한 번, 다음 섹션에서 주로 구약성경, 구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언약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성취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대부분이 동의하는 주요 언약은 노아 언약, 즉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 언약, 즉 창세기 12, 15, 17, 2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그리고 역대기상, 시편 중 일부에서 다윗 언약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레위 언약은 레위와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데, 아마 제가 시간을 들여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인 예레미야 31장이 새 언약에 대한 가장 명확한 언급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이 있습니다. 창조는 어떨까요? 언약이 있을까요? 아니면 창조 당시에 언약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거기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언약 창조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고, 다른 사람들은 가장 최근에 피터 젤트리와 스티븐 웰럼 이 몇 년 전에 쓴 언약을 통한 왕국이라는 책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당시에 언약이 있었다고 길게 주장합니다. 언약 간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언약과 구약의 구체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지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스콧 하페만은 Central Themes라는 책에서 언약에 대한 기사나 장에서, 성경은 구속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하나의 지속적인 관계를 증거하며, 그 관계는 연속적인 언약으로 공식화되고 구체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것을 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등 여러 가지 다른 언약이 있지만, 이 모든 언약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세우신 하나의 포괄적인 관계 또는 언약적 관계를 연속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은 구속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하나의 지속적인 관계를 증거하는데, 그것은 연속적인 언약에서 공식화되고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서 연속적인 언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간략하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고, 거기서 언약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한 다음, 정경 순서와 역사적 순서로 다른 언약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한 준비로서.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요한 계시록 21-22장의 성전에 대한 세션 8입니다.